

함께하는 시민 운동 광명

2026년 상반기

광명시 적극행정
우수사례를
소개합니다!



대상

(광명-군포)수도권 직매립 금지 위기 극복! 기초지방정부 간 장벽을 허문 ‘교차소각 공유망’ 구축(전국최초)

기존

- ▶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시행
- ▶ 소각장 정기보수(연 50일) 기간 중 폐기물 처리 공백 발생
- ▶ 충북 청주 등 타 지역 원정 처리 불가피 및 민간위탁비 급등

개선

- ▶ 지자체 간 장벽을 허문 전국 최초 '1:1 상호 교차소각' 협약 체결
- ▶ 광명시와 군포시 간 소각장 보수 일정을 엇갈리게 연동하여 상시 가동망 구축
- ▶ 도내 지자체 데이터 분석으로 최적 파트너(군포시)를 발굴하여 공공 인프라 공유 체계 마련

효과

- ▶ 생활폐기물 연계처리망 구축으로 상반기 '공공처리 100%' 달성
- ▶ 무상 교차소각 시스템을 통해 상반기 1.45억 원예산 절감 (광명-군포 통합 상반기 기준: 연 3.53억 원)
- ▶ 개별 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한 '자원순환 국가 표준 모델' 제시

우수

- 발 빠른 결단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대형재난
예방하다! - 충훈대교 접속도로 우측 보강토옹벽 붕괴
위험징후 발견 및 선제적 조치

기존

- ▶ '25. 7. 16. 〇〇시 보강토옹벽 붕괴(약40m) 사고가 발생으로 차량 2대 매몰, 1명 사망, 1명 부상 피해 있었음
- ▶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법적 안전점검대상 사각지대까지 확대하여 관내 도로 보강토옹벽 조사 실시

개선

- ▶ 법적 점검대상시설물이 아닌 충훈대교 접속도로 우측 보강토옹벽의 붕괴 전조증상 최초 발견 및 안전점검 추진
- ▶ 안전점검 결과 '보통(C)' 등급 판정에 안주하지 않고, 현장의 위험성을 끝까지 의심하고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사례와 비교·분석하여 과감하게 정밀안전진단 추진
- ▶ 정밀안전진단 결과 'D등급' 판정되어 선제적 교통통제 및 긴급 보강공사 추진 근거 마련

효과

- ▶ 긴급보강 및 교통통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
- ▶ 차량통제 등 신속한 선제조치로 인적·물적 피해 '0'건 달성, 시민의 생명 보호 및 '안전도시 광명' 행정 신뢰도 제고
- ▶ 붕괴사고 발생 시 투입해야 할 대규모 재난복구비용, 피해보상금 절감 및 장기교통통제에 따른 사회적·경제적 손실비용 절감 효과

우수

광명사랑화폐 1조 원 시대, 규모는 키우고 혜택은 촘촘하게!

기존

- ▶ 연매출 12억 원 기준으로 획일적인 가맹점 제한
- ▶ 카드형만 운영되어 관광객·디지털 취약계층 이용 불편
- ▶ 인센티브 10% 연중 지원

개선

- ▶ 연 매출 기준 15억 이하로 확대
 - 병원·약국·학원 등 생활밀착업종 포함 공정무역가맹점, 비영리법인 연 매출 기준 30억 원 완화 업종별 기준 다양화
- ▶ 지류형 광명사랑화폐 도입
- ▶ 인센티브 10% 와 다양한 캐시백 정책 병행 운영

효과

- ▶ 누적 발행액 1조 원 달성, 시민 만족도 94.3%
- ▶ 특별교부세 14억 4천만 원 확보
- ▶ 가맹점 8,656개 확대, 시민 체감 혜택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

우수

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국유재산 철거 합의 및 K-혁신타운 도시개발사업 조기 추진

기존

- ▶ 장기간 방치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민원 발생
- ▶ 국유재산 방치건축물 철거 및 행정절차 지연

개선

- ▶ 기획재정부·캠코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방치건축물 철거 합의
- ▶ 개발계획 및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행정절차 조속 추진
- ▶ K-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

효과

- ▶ 방치건축물 철거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반 마련
- ▶ 관련기관 협의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속 완료
- ▶ 공원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,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

우수

목감천 진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·운영을 통한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

기존

- ▶ 집중호우 시 현장 출동 후 테이프 또는 차단띠로 진출입로를 수동 통제
- ▶ 약 5km 구간 25개 진출입로가 분산되어 신속한 통제 및 대피에 한계

개선

- ▶ 목감천 진출입로 25개소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원격 차단체계 구축
- ▶ CCTV 14개소를 연계해 실시간 현장 확인 및 신속한 출입통제 가능

효과

- ▶ 진출입로 통제 소요시간을 줄여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
- ▶ 현장 인력은 차단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시민 대피·안전 확인에 집중
- ▶ 목감천 선제 통제체계를 안양천으로 확대하여 국가하천 재난대응체계 고도화

우수

-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아동 돌봄을 통한
마을공동체 활성화 - 광명6동 '아동 토요일돌봄교실
공모사업' 추진

기존

- ▶ 단순화된 동 행정의 역할(단순 행정 민원 처리 등)
- ▶ 광명시 최초 주민선택 동장공모제를 통한 사업추진에 따라 전국적으로 선행사례를 찾기 어려움

개선

- ▶ 경기도 최초로 행정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이 직접 돌봄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아동 돌봄 모델 구축
- ▶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광명6동 주민 세 가족 이상 모임이 스스로 견학, 체험 등 활동을 계획하고 함께하는 아동 돌봄 활동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'주민 주도형 아동 돌봄 사업' 추진
- ▶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사전컨설팅 및 공모사업 운영지침 제작 등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 마련

효과

- ▶ 동 행정의 역할 변화(주민자치.돌봄.생활밀착형 행정 추진)
- ▶ 14개 모임(총 53가족)의 '주민 주도형 아동 돌봄 공동체' 형성
- ▶ 경기도 최초, 광명시 광명6동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아동 돌봄 사업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확산 가능성